

'북한 어린이 돕기' 3년째 거리모금

신행현장

정토청년회의 토요일 오후



정토청년회 회원들이 16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북한어린이돕기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다.

"걱을 것과 고통, 사랑을 나눌 때, 희망과 생명이 살아납니다. 북반 어린이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시다"

16일 오후 3시 서울의 대표적 상가 밀집지역인 명동거리. 북한 어린이 돕기 모금활동을 벌이는 정토청년회(회장 박남규) 불자들이 모금 통을 들고 분주히 움직인다.

가로수에 걸려 있는 길게 그림 아래서 문화운동가인 한나눔씨가 피리를 불고, 청년회원인 정상오씨가 마이크를 들고 북한어린이 돕기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박남규 회장을 비롯하여 박혜연, 박용은 회원과 지원 나온 청소년 불자학생들은 지나가는 행인들을 붙잡고 북한 어린이 돕기 팸플릿을 나눠주며 북한의 현황을 이해시키기 바쁘다.

"힘들지요. 행인들과 같이 걸으면서 1분의 시간 안에 말을 해야 해요. 잘거머리처럼 하지 않으면 요요같이 북한 돕기 운동이 시들한 분위기에서는 모금을 하기가 무척 힘들어요"

모금통을 들고 지나가는 행인들을 붙잡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정상오 회원(시종건축 직원)은 "처음에는 시간적 제약 때문에 고민이 많았

다며 "북반동포는 통일이 되면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의 핏줄이다. 통일된 땅에서 우리 민족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정토청년회가 북한 어린이 돕기 모금활동에 나선 것은 98년 6월 둘째 주 토요일부터다. 당시에는 식량 부족으로 북한에 아사자가 대량 속

민족아픔 나누자

명동거리서 호소

북한실상 팸플릿

40만여장 배포

출하는 상황이었다. 급한 마음에 모금통을 만들어 명동에 나온 청년 불자들은 6개월간 모금활동을 벌였다. 이렇게 시작한 모금활동이 6개월마다 연장되면서 16일로 3년을 맞은 것이다.

전체 회원이 10여명에 불과한 정

토청년회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명동거리에서 3~5명이 번갈아가며 모금운동을 진행한다.

정토청년회 회원들이 3년간 모금한 금액은 현재까지 총 6천3백60만원에 이른다. 이 기금은 교계 국제구호

단체인 한국JIS를 통해 북한의 라진 선봉지역 탁아소 어린이들의 영양식을 제공하는데 쓰여지고 있다. 또 일부는 (사)좋은 벗들을 통해 중국으로 넘어온 식량난민을 돕는데 사용되고 있다.

청년회원들은 또 모금이 끝나면 서초동 정토법당으로 가서 저녁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통일을 기원하며 철야정진을 하고 있다.

정토청년회가 북한의 실상을 알

리는 팸플릿 내용도 15회나 새로 고쳐졌다. 이제까지 시민들에게 배포된 북한 실상을 알리는 팸플릿만도 40만장에 이른다.

정토청년회 회장인 박남규씨는 "3년간 모금활동을 하며 저질로 북한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 북한을 돕는 것 자체가 민족의 통일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며 "사회적 실천을 통한 진보를 이뤄나갈 때 불교발전은 저절로 된다"고 밝혔다.

정토청년회는 앞으로 인사동과 강남터미널, 조계사 앞동 7~8개 지역에서 통일모금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주부 청소년 자원 봉사자도 모집할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주제가 있는 법문 "흔들림없는 불자 많을때 칠혹같은 세상 밝아져요"

착하지 않은 법을 멀리 여의고 으뜸가는 이치에 바로 머물면 세상에서 으뜸가는 존경을 받는다. 이것을 집착 없음이라 말한다. 하늘과 사람을 요역하게 하고 지혜의 눈을 흐리게 하며 두루 알아 현재에서 다 사 무쳐볼 수 있으면 이것을 바른 깨달음이라 말한다.



도영스님
김재
금산사 주지

이 말씀은 <아함경> 불보품에 나오는 부처님의 계승입니다. 착하지 않은 법은 어떤 것이냐? 서로를 불편하게 하고 갈등의 나락에 떨어지게 하는가 하면 자기만의 주장을 내세우는 일이 곧 착하지 않은 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좌장하여 고뇌하신 내용 가운데 핵심은 이기적인 사고와의 싸움에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다

탐욕·집착 버리면

허공처럼 텅빈마음

는 것이며 이로 미루어 볼 때 착한 법이란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모두 구현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으뜸가는 이치에 바로 머문다 함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보시와 자비복덕과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니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을 버림으로써 허공처럼 텅 빈 마음으로 돌아가 청정하고 인락한 삶을 누릴 때 동시 세상에서 으뜸가는 존경을 받게 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일에 급급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한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가슴 깊이 고뇌하는 사람,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값지고 보람 있는 삶이 될 것인가 울골은 마음의 결론을 얻을 때까지 명상하고 심사숙고하는 사람을 수행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남김 없이 회향할 줄 알아야 하며 무소유자로 돌아가야 한다고 부처

님께서는 언제나 일깨워주고 계셨습니다. 수행자가 지닌 능력과 소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늘과 사람들을 널리 이의 되게 하고 눈 밝고 귀 맑은 사람으로 지혜의 눈을 열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을 모두 소멸하고 나와 남이 둘이 아닌 한 생명의 진리를 사후에 알게 되면 이것을 바른 깨달음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교인이 깊이 사유하고 성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바른 깨달음의 다짐과 성취입니다.

중생들은 업장에 가리어 칠혹같은 어둠의 세계를 목격도 없이 막연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을 겪게 될지도 모르고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옳고 그른지도 분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혹의 세계를 무명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부처님께서

는 미혹의 세계에서 윤회하는 중생들을 연민하시어 성불하시고도 중생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마치 중생들처럼 생로병사의 근본적 고통을 겪으시며 출가하셨으며 6년간의 피나는 실천수행으로 무명을 떨치고 마침내 깨달음에 이르는 지름길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중생들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교만함과 의심 등 근본번뇌가 깊은 중생들의 줄 거울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생각만 틀어지면 바로 부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데 중생들은 어김없이 육도 윤회의 길로만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과 유혹이 천길 지옥의 나락으로 우리를 밀어 넣고 있다는 사실을 확연히 깨달아야 합니다. 흔들림 없이 주관이 뚜렷한 불자로서 부처님의 정법을 열심히 배우고 익혀야 할 것입니다.

신행 캘린더

6월 28일 (목)

■창작극 카르마 공연=우바이무용단은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창작무용 '카르마'를 공연한다. 카르마는 한국 문화예술진흥원의 2001 우수레퍼토리로 선정된 작품이다. (051)816-2241

■통도사성보박물관 특별전=통도사성보박물관은 9월 17일까지 '하늘에 닿는 불교왕국 티베트'를 주제로 통도사성보박물관 신축개관 2주년 기념특별전을 개최한다. (055)382-1001

6월 29일 (금)

■초안스님 열반 3주기 법회=오봉산석굴암은 오전 10시 증창주 초안당 유성스님을 추모하는 초안스님 열반 3주기 법회를 봉행한다. (031)826-3573

■불학연구소 세미나=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는 오후 1시 30분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조계종 조도의국사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02)732-4921

■장제문화회 학술발표회=장제문화회는 오후 1시 30분 경기도 문화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장묘시설 설치와 지역이거주의 극복'을 주제로 춘계 학술발표회를 갖는다. (02)765-8111

6월 30일 (토)

■방송연인인 연수회=조계종 포교원은 7월 1일까지 법주사에서 연인인 불자를 대상으로 제2회 방송, 연인인 연수회를 개최한다. (02)737-7588

7월 1일 (일)

■석불선양회 순례법회=석불선양회는 제15차 순례법회를 실시한다. 오전 7시 30분 동대문 이스턴호텔 앞에서 출발하는 이번 순례법회는 춘천 서상리 삼층석탑 참배와 육군 제7사단 신병교육대 훈련병 위문으로 진행된다. (02)996-7945

■선무도 하계수련회=선무도 대금강문은 9월까지 골굴사에서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선무도 하계수련회를 개최한다. 기간은 1주, 2주, 1개월 등으로 구분되며, 참선, 선요가, 선무술, 전통문화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054)745-0246

■불교문화기행=불교문화연구원은 내소사와 개암사를 둘러보는 불교문화기행을 실시한다. 이번 기행은 오전 7시 서초구민회관에서 출발해 당일 오후 7시까지 계속된다. (02)582-6613

7월 3일 (화)

■해인사 수련법회=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본사 해인사는 7월까지 2001년도 2차 여름수련법회를 개최한다. (055)931-1390

생활속의 불교

'살생'이 쥐미라고?

남의 생명을 내 생명과 같이 생각한다면 살생할 일이 없다. 남의 물건을 내 물건 같이 생각한다면 도둑질할 일이 없다.

생명은 다 같다. 물고기 생명이나 사람 생명이나 차원이 다를 뿐이지 생명은 똑같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데도 재미삼아 생명을 죽이기까지 한다. 심지어는 신상카드의 취미란에 '살생' (낚시, 사냥은 살생이다)이라고 적는 이도 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무엇보다도 제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 그리고 평안과 자유를 위해 피눈물 나는 노력과 투쟁을 한다. 차원의 높낮이만 다를 뿐 생명이 겪는 아픔은 사랑과 축성·미움이 다를 바 없다.

부처님께서서는 나와 남의 생명을 둘로 보지말라고 가르치셨다. 다른 종교에서도 이 뜻을 네 곁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친다.

남·이웃은 사람만을 지칭하지 않는다. 생명있는 모든 것, 나아가서는 무정물까지 나와 상대되는 만유(萬有) 일체를 말한다. 그러기에 대지대비인 것이다. 조건 없는 자비, 조건 없는 사랑인 것이다.

무엇을 사랑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 은연중이라도 대가를 바라다면 그것은 욕심이다. 자기식의 관념·집착·이해관계에서 출발한 조건 붙은 사랑이다. 남의 사랑은 대체로 그런 꼬리표가 붙은 사랑이다. 따라서 진정한 사랑이라 말할 수 없다.

진정한 자비, 진정한 사랑이란 '나'를 비운 사랑, '나'를 비운 자비를 말한다. 부처님께서서는 위대한 자비의 길이 '자기비움'에 있다고 하신다.

그렇다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자기비움'을 실천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은 무척 어렵다고 한다. 수억급 쌓이고 쌓인 관념의 때가 그만큼 두껍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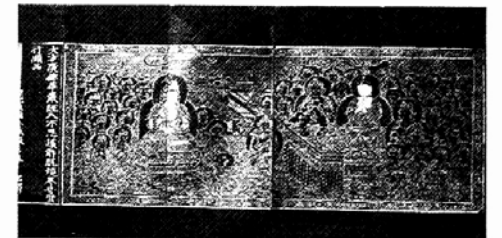
그러나 '자기비움'의 길은 가까운 데 있다. 바로 생명사랑, 이웃사랑이다. 살생을 그만두는 것만으로도 이미 실천은 시작된다. 나아가 이웃을 사랑해 보라. 작은 일, 큰 일 따지지 말고 따짐없는 관념이다. 이웃에 대한·헌신, 이웃과의 나눔을 실천해 보라.

동산미술학과 개설

● 불교미술 개설 취지
불교미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부처님 경전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변상도를 직접 그려봄으로써 불보살상에 대한 신심과 예경을 표현하고, 1600년의 한국불교미술에 대한 종합적인 심미안을 체득, 전법과 포교인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론편	인도불교미술, 중국불교미술, 한국불교미술, 동남아불교미술, 불교사찰, 탑, 불상, 회화, 돈황미술, 고려미술, 조선미술, 티베트미술, 현대불교미술, 법화변상도, 정토변상도, 화엄변상도
실기편	민화, 단청, 사천장, 8부중, 팔상도, 보살상, 부처상, 영산변상도, 정토변상도, 화엄변상도, 만다라

● 모집요강
· 입학일시 : 2001년 8월 4일(토) 오후 5시
· 지원자격 : 불교미술을 통하여 불교신행하고자 하는 자
· 모집인원 : 정규반 (30명)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화엄경 변상도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불교대학**
02)732-1206

동산 우리 춤학과 개설

● 불교춤과 개설 취지
우리의 몸 속에 면면히 흐르는 민족의 춤가락을 신명나게 배워 전통의 맥을 잇고, 불교의 사상과 몸짓이 만나 깨달음의 길로 다가가는 과정.

지도 교수	이애주 교수 (서울대 교수) (중요 무형문화재 제 27호, 승무예능 보유자)
내용	① 우리춤 기본(몸놀림의 기본 토대 교육) ② 승무 기본(영불기려, 티령기려, 국거리 기려) ③ 작법 기본(춤의 기본 시위와 바라춤) ④ 복과 장단기법(복놀림과 우리 장단의 기본)

● 모집요강
· 입학일시 : 2001년 8월 4일(토) 오후 5시
· 모집인원 : 정규반 (30명)
· 강의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001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기 위해, 교계대대스님 및 교수들을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19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

1년 교과목	· 법화사상·반야사상·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불교개혁론·선사상 · 불교미술·밀교사상·포교방법론	· 무전장스님(본대학학장)·박종(동산불교대교수)·문용식(동국대교수)·권민준(동국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권기중(동국대교수)·최종석(동국대교수)·윤영수(문화재단전문위원) · 중석스님(승가대교수)·한정실(금강선원이사장)·김호기(동국대교수)·유진스님(동국대교수)
2년 교과목	· 근본불교·대승불교·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인도불교사·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유식사상·정토사상	· 암도스님(전보교원장)·최봉수(동국대교수)·주명철(동국대교수)·오국근(동국대교수) · 정병호(동국대교수)·계환스님(동국대교수)·김상현(동국대교수)·김성영(승가대교수) · 표주스님(동국대교수)·장희욱(동국대교수)·차차식(동국대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 정규반 (100명) · 주간반 (50명) · 통신반 (50명) · 불교미술학과 (30명) · 불교유리학과 (30명)	· 불교를 적극 · 신학하고자 ·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2001년 6월15일~ 2001년 7월31일 입학금 1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2시(주간반) · 매주 화요일 오후2시(미술반) · 매주 목요일 오후4시(유리반)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4. 입학일시 2001년 8월 4일(토) 오후 5시 (동산불교대학)

본대학 사무국 Tel. 02)732-1206~8 Fax. 732-1207 (우)110-140 서울 중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org
·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 02)733-0333 · 부산 : 불서보급사 051)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232-7542 · 제주 : 한라불교신문사 064)55-2203

* 특전사항 :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교시를 거쳐 조계종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불교대학**